

한국교회 진단

WCC, WEA는 불법의 자식, 뒤집어 엮어진 거짓 복음

한국교회에 고함! 주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탄의 종이 될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은 영구불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토를 달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삶의 지표이며 절대적인 기준이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기록이며 믿음의 선진들의 좌절과 인내, 실패와 성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룩한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우쭐대는 목사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 절대적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작은 교향(교회인의 황제)들이 되어 가고 있다.

예루살렘의 운동을 지지하는 교단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틀리다고 느껴진다면서 가지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 본인의 영성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통합을 꿈꾸는 WCC에 큐레니컬 운동, WCC는 기독교회라고 둔갑한 피리 아홉 달린 방자한 요물이다. 또한, WEA와 이교도인 로마의 종교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 운동에 좌우 살피지 않고 교단과 담임 목사의 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라가거나 동조하는 것은 영적 무지오 정밀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는 그 순진무구한 성도들에게 그 사악한 영적 위험성을 알려줄 의무와 사명이 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8:33).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 태어난 자식이라고(요 8:44). 후손이며 조상의 정체성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요 8:39).

지금의 한국교회 실상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나뭇잎은 산개는' 예수님 당시의 위선자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본래의 정통 기독교회가 타고난 정체성은 시간이 갈수록 상실되어가고, 오히려 정반대의 정체성으로 점점 변질, 변형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한국교회이다. 우리가 아는 정통 기독교회는 루터, 칼빈, 쾰링거, 요한 루스 등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종교) 개혁으로 비롯된 다음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로마제국의 종교 '가톨릭'의 수장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비성경적이고 반 기독교회이며 이교도적인 교리, 제도, 전통을 가진 우상의 종교로마 가톨릭'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 중심 위에 서서 개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된 본래, 초대 기독교회로 회복시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해방 받고 끊어진 오욕의 역사를 끊임없이 성경중심으로 개혁시키며 이어온, 이것이 정통 기독교회가 타고난 생명이요 불법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정통 기독교

회를 우상의 종교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켜 희석시켜 버리려는 미혹의 가짜, 거짓 복음을 도입, 명령된 정체성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한국교회를 정통적인 기독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정통 기독교회라 함은 비성경적이고 기독교회의 적적이 되는 교리 및 제도와 전통을 절대 배격한다. 오직 성경만을 토대로 한다. 그 말씀 위에서만 정확한 기준을 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사상의 기초를 서슴(가감)없이 오로지 말씀에서만 제시해주는 길을 따라간다. 오랜 세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개혁)자들이 모진 피와 땀 위에 세우놓은 그 길 위에서 지켜지고, 전수되며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의 성경적인 본래의 기독교회를 지킨 원동력(原動力)이며 이를 정통 기독교회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목사들의배도, 배교의시대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정체성을 선호하며 추구하고 있다. 곧,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전통을 배척하거나 경계하기는커녕, 이들의 사상을 포용하며, 혼합주의에 기웃거리다 못해 이제는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물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통 기독교회를 일으켜 세운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들이라고 자부하던 통합 교단과 NCC는 이미 더 이상 정통 기독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정통 기독교회를 아주 해괴한 혼합 종교이며 우상종교인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켜서 본래의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려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기독교회는 본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채 단지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단체(집단)로 전락할 수도 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흘린 순교의 피와 땀의 열매로 지금까지 기독교회를 굳건히 지켜 왔다. 성경에도 없는 하나의 유사종교인 로마 가톨릭'을 배격하고 본래의 기독교회로 회복시켜 놓은 정통 기독교회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2014년 5월 22일 로마교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를 맺음으로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버리려는 통합 교단과 NCC, 이들이 과연 무슨 기독교회란 말인가?

만약, 이러한 영적 기행행위를 계속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은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도, 배교자들로, 말씀의 반역자요 진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의 원수요 심판 날, 불에 소멸될 가라지여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이 속한 규모가 한국교회 절반 이상의 수준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과연 통합 교단과 NCC 소속이 아닌

나머지 한국교회 절반의 경우도 정통 기독교회로 타고 난 생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절대 그렇지 못함이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의 나머지 절반이라도 믿음의 선진들로 비롯된 정통 기독교회의 개혁 성향과 그 정체를 고수하고 있다면, 통합 교단과 NCC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경계하며 때에 따라서는 배격 치듯이 경중이라도 울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의 학연, 지연, 강단교류, 부흥집회 인도 및 연결, 인연 등 상하 이익 관계로 얽혀 설기 얽혀, 그대로 용인, 서로 존중하며 점점 같은 무리로 동화되어 변질되어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통합교단과 NCC의 배도, 배교, 하나님의 원수 행각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으로 존중하고 이들과 연합해 버린 것이 불행하게도 합동 교단이다. 합동 교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합 교단과는 WCC로 인하여 강단교류도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나마 한국교회의 보수교단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처하던 합동 측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과 3, 4년전부터 증경 총회장들의 욕심과 그들의 신학적 무지의 소산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시작했다.

결국엔 그 울타리가 무너지더니 합동 측마저도 서서히 변질되어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까지 와있다. 그동안 굳건하게 고수해오던 본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지금은 아무 힘없이 팔타거리는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의 모든, 한국교회의 영적 현 주수로 탐바꿈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이렇게 영적 이수리장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 정작 담대한 영적인 문제가 아닌 온통 육적인 다른 곳에는 온갖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일에는 관심과 열정을 쏟아내며 넘치는 에너지를 아낌없이 발산하며 영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곳에 힘을 빼고 있다. 뱀비한의 개구리처럼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알개 모르개 서서히 잠식되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총체적인 본체의 위원은 WCC, WEA 이교도인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이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자라난 하나님과의 원수요 악으로 변질, 위조된 거짓의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대는 믿음의 선진들로 비롯된 정통 기독교회가 다음 세대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이를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의 알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다.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WCC, WEA 이교도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의 사악한 간계를 드러내어 더 이상 한국교회에 미혹 당하지 않도록 독한과 더불어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도, 배도, 반역, 대적 행위를 일으킨 WCC 회원인 통합 교단과 NCC를 강력 규탄하며 회개할 것을 지면을 통하여 촉구하는 것이다.

통합 교단과 NCC는 하나님과의 원수 됨에 있어서, 속한 교단신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1) 하루속히 2009년도에 '가톨릭'과 '일치'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취소 선포하고, WCC 회원에서 공식 탈퇴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2) 2013년 10월 제2의 신시집례요, 사탄의 회인 종교다원주의 'WCC제10차 부산총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에 영적물의를 일으킨 주회자들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슴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이며, 한국교회에 갖은 우상을 끌고 들어온 패악 짓에 대한 영적 불륜을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2014년 5월 22일 '가톨릭'과 함께 정립한 '신앙과 직제 일치'를 파기 선언하고, 4) 2017년 102회 총회 시결의 통과시킨 관련 사실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 파기 선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WCC, WEA는 기독교회의 옷을 입고 기독교회 자리에서 기독교회처럼 행동하지만 그 모든 모양새는 이리가 덮어쓴 양의 탈이며, 가면이며,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은 불법의 자식들이다. 그들에게서는 천국 시민의 범새가 나지 않는다. 이들이 비록 성경을 들먹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인본주의 인간 사상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세우려는 자들이다.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됨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인이었던 우리 옛사람도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 새 사람이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나라" 이러한 정통 기독교회는 인간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재이다. 이러한 기독교회 안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인간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성과 상관 없는 이교 사상들을 교회 안에 점목, 추구하는 자들이 WCC, WEA, '신앙과 직제 일치'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의 한국교회 대부분은 WCC, WEA의 인간 세속 사상을 따라서 인간 세계 나리틀 교회 안에 세우는 일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하여, 정통 기독교회 일원(성도)인지, 이 세상의 타락한 사회 일원의 일부인지 도무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복음주의는 기면을 쓰고 누룩처럼 침투한 사탄의 간계 WEA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WCC와 '신앙과 직제 일치'도 문제이지만 WEA가 더 큰 문제이다. WEA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WCC도 포용하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이교 로마의 종교 가톨릭'도 포용하고, 자유주의 신학도 포용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포용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회 철학도 포용하고, 정치 정당도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WEA는 정통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대적들로서, 복음주의는 위장된 교묘한 양의 탈을 쓰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안으로 누룩처럼 침투하였다.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좀 먹듯이 아금아금 먹어 치워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다. 그렇듯한 WEA의 포용주의 정체성안으로 끌어들여 정결한 정통 기독교회의 일원들을 개종시키려는 최대의 대적이 WEA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WCC와 WEA가 목격하고 추구하는 구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 사명과는 완전히 다른 뒤집어 엮어진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 변개시킨, 인간 사상이서 비롯된 저주받을 다른 복음, 거짓된 사탄의 복음이다.

갈 1: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로라"

갈 1:8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WCC, WEA는 기독교회의 옷을 입고 기독교회 자리에서 기독교회처럼 행동하지만 그 모든 모양새는 이리가 덮어쓴 양의 탈이며, 가면이며,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은 불법의 자식들이다. 그들에게서는 천국 시민의 범새가 나지 않는다. 이들이 비록 성경을 들먹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인본주의 인간 사상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세우려는 자들이다.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됨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인이었던 우리 옛사람도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 새 사람이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나라"

이러한 정통 기독교회는 인간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재이다. 이러한 기독교회 안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인간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성과 상관 없는 이교 사상들을 교회 안에 점목, 추구하는 자들이 WCC, WEA, '신앙과 직제 일치'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의 한국교회 대부분은 WCC, WEA의 인간 세속 사상을 따라서 인간 세계 나리틀 교회 안에 세우는 일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하여, 정통 기독교회 일원(성도)인지, 이 세상의 타락한 사회 일원의 일부인지 도무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골 2:8 "누가 철학과 학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으로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한국교회는 지금 500년 전 로마 종교 '가톨릭'과 맞서서 싸운 교회(종교) 개혁자들의 정신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다시 로마 종교 '가톨릭'에 자진하여 귀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에 본 연대는 죽은 나무와 같이 생명이 없는 WCC, WEA, 이교도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의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인본주의 사상 등이 한국교회 안에서 갈수록 거세게 주장되며, 세위져 나가고 있음을 통탄이 여겨 일시적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 굳게 세워지고, 진리만 주장되며 성취되는,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스물다섯번째의 소책자를 발행하는 것이다.

주후 2019년 4월 1일

WCC · WEA 반대운동대

홈페이지 :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증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ASSEMBLIES OF GOD